

함평에 전국 최대규모 표고버섯 톱밥배지센터 건립

저급 중국산 톱밥배지 대체...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도, 신광면 가덕리 3만㎡에 60억 들여 2015년 조성

함평에 전국 최대 규모의 표고버섯 톱밥배지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17일 “저급 중국산 톱밥배지를 대체하고 톱밥배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부권 표고버섯 톱밥배지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톱밥배지센터는 함평군 신

광면 가덕리 일원 3만여㎡의 면적에 60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센터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주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주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연간 200만 봉의 배지를 생산해 800여 지역 표고버섯 생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전남에서는 고소득 작목으로 알려지면서 표고버섯 농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 봉 이상의 톱밥배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서 생산되는 배지의 양은 60만 봉에 그쳐 질이 낮은 중국산이나 타 지역의 배지를 구입해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권 톱밥배지센터가 완공되는 2015년에는 톱밥배지 표고버섯 생산자 및 생산시설 증가에 따라 연간 900만 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 표고버섯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배지 공급기지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장흥을 중심으

로 참나무 원목을 이용한 건표고버섯을 주로 생산해왔으나 지역 농가들의 고령화와 참나무 원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표고버섯 재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표고버섯 생산 시기의 불과 가을 기간이 짧아지고 자연재해로 인해 표고버섯 생산량 변동이 커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종류에 따라 무게가 1~3kg 가량으로 고품질인 지역 농가에서도 쉽게 작업이 가능하고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시설에서 연

중 재배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농가 경영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전남도는 남부권 톱밥배지센터 조성을 통해 국내 배지 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 저급 중국산 톱밥배지를 대체하고 지역 표고버섯 생산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톱밥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으로 지역 표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강진 발마사지봉사회 ‘재능기부’ 국무총리상



12년 동안 매달 1회 이상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펼쳐온 강진발마사지봉사회가 제3회 대한민국농촌마을대상 재능기부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은 지난 9월 강진을 기쁨마을회관에서 강진발마사지봉사회가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 (강진군 제공)

목포 해양문화축제 2년 연속 선정

문광부 ‘문화관광축제’에...해외홍보·마케팅 인센티브

목포해양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목포시는 17일 “목포해양문화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칭을 사용과 함께 관광진흥기금 89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해외홍보, 축제 마케팅 등 각종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1000여개에 달하는 축제 속에서 단 40개 축제만을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선정된 것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 이뤄낸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시는 2014년 목포해양문화축제 개최를 삼학도로 일원화하고 목포항 권역으로 축제장을 확대해 지역수산물 등과 연계한 생산성 있는 축제로 꾸밀 방침이다. 또 해양 전통문화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항구와 바다사람들의 문화재현, 물고기 등 페스티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정중득 목포시장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만큼 보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 발전시켜 나갈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통로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보건소가 군민들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 구성된 건강걷기 동호회 회원들의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 상태를 점검한 결과 체중과 복부지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열린 걷기대회 장면. (담양군 제공)

걷기운동 많이하면 신체·활동 능력 훨씬 좋아진다

담양군이 군민들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 구성된 건강걷기 동호회 회원들의 신체 및 활동 능력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보건소(소장 조명순)는 17일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주 1~2회씩 지속적으로 건강걷기 동호회 회원 190명을 대상으로 운동 전·후 체중, 골격근량, 복부지방률, 체지방률 등을 분석한 결과 체중과 복부지방률이 각각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담양보건소 동호회원 분석

체중·복부지방률 크게 감소

분석결과 참가자 평균 체중이 59kg에서 57.1kg으로 1.9kg이 감량됐으며 복부지방률도 0.93%에서 0.90%로 0.03%가 줄었다.

보건소는 지난 13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행복추진 건강걷기 동호회 대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행복추진 건강걷기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운동이 분석을 통해 실제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내년에도 농촌형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걷기에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완도 고금고 대학 진학률 사상 최대

올해도 이화여대·광주교대 등 8명 합격

완도 고금고(교장 이종운)가 도서벽지라는 한계를 넘어 올해 사상 최대의 대학 진학률을 보여 화제다. 특히 3학년 김민지양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화여대 영어교육과에 합격하는 등 질적인 면도 성장하고 있다.

17일 고금고는 “지난 2005년 도부터 해마다 전라도교육감 추천 도서전형으로 광주교대에 2~3명이 진학하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지금까지 이화여대 1명, 광주교대 1명, 전남대 3명, 나사렛대

1명, 국립 한국교통대 1명, 조선대 1명 등이 합격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학교 숲 가꾸기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교생 스카우트 단원화,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독서토론 학술동아리, 영어학술 동아리 등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한 것이 주요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또 모든 교원들이 모의면접관이 돼 학생들을 지도하는 열정도 한 몫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韓銀목포본부, 중기 설 자금 50억 지원키로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정남석)는 17일 “내년 설을 앞두고 임금 및 원자재 대금 지급 등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전남 서남부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5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관

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관내 금융기관이 내년 1월 2일부터 29일까지 소비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금융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운전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3억원(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6억원), 지원기간은 1년 이하다.

한국은행이 대출금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동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은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목포=김준수기자 kjs0533@

농촌체험 각광 장성 ‘자라피마을’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영예

장성군의 대표 농촌체험마을인 북이면 자라피마을이 6차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섰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자라피마을이 이날 대전 유성구 ICC 호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에서 색깔 있는 마을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지자체 부문 대통령상 수상에 연이은 2년 연속 쾌거다.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신설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자라피마을은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 개발 및 체험장 운영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전국 3000여 개의 농촌체험마을 가운데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유기농단지에서 민들레를 재배·채취해 차, 김치, 장아찌, 비빔밥 등의 다양한 가공 상품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여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민들레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를 위해 연면적 82㎡ 규모의 민들레 가공체험장을 건립했다.

도내 농경지 용·배수로 일제 정비

전남도는 17일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영농철 이전까지 농경지 용·배수로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간척지 배수로에 자생하는 수초와 토사를 제때 제거하지 못해 배수가 지연되고 장마철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내년 영농철 이전까지 정비 대상 용·배수로 일제히 조사하고 수초와 토사를 제거해 장마철 재해를 사전 예방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용·배수로 실태

를 현지 조사해 정비할 대상지를 확정하고 굴삭기 및 덤프 등 응급 복구장비를 총동원, 내년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구에는 시군 중장비를 우선 활용해 정비하고, 배수펌프장과 원격 제어시스템 등 중점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구는 수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189억원을 투입해 시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 1407km를 정비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프리미엄 빌라의 새로운 기준” **미림빌** 선착순 분양중!

즉시 입주

- 최고급 도시형 생활주택
- 최고의 전망과 학군
- 엘리베이터 설치
- 친환경 편백나무 시공
- 최고급 인테리어 시공
- 고급 가스오븐렌지·식탁 설치

1층 주차장	2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4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3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5층 A타입 33평 2세대 B타입 28평 2세대	

분양문의 011-611-1288 · 062-372-1607 해남 동초등학교 후문 앞(성동리회관 옆)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가지...

결혼 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성사율 호남1위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광역시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27-63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세무사, 영양사 26-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교사, 교수 28-4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광주) (063) 275-7766